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마 4:1-11)

### The Third Temptation of Jesus (Matt. 4:1-11)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들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 신적인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두 번이나 실패한 사탄은 이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또 한 번 시험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hen Jesus was tempted in the desert, He did not use any divine power in order to defeat the temptation.

Although Satan had failed to tempt Jesus twice already, he tried to test Him once more.

1. 왜곡된 진실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에는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눅 4:6-7)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벰후 2:4),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유 1:6). 신약의 기자들은 사탄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라고도 하며,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원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다시 찾는 방법은 결코 사탄에게 한 번 절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사탄의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 Distorted Truth  
Satan says, in the Gospel of Luke, “I will give you all their authority and splendor, for it has been given to me, and I can give it to anyone I want. So if you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Luke 4:6-7).

“For God did not spare the angels when they sinned, but sent them to hell, putting them into gloomy dungeons to be held for judgment; (2 Pet 2:4)” “And the angels who did not keep his position of authority but abandoned their own home—these he has kept in darkness, bound with everlasting chains for judgment on the great day” (Jude 1:6). Authors in the New Testament say that Satan is an angel that has sinned and who has left his position. And Paul expresses that Satan is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n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Gen 1:28). By nature God gave us the power of the air and the earth. It is true that Adam and Eve lost the authority of the world to Satan when they fell from God. But the way to get it back was not by bowing to Satan. Jesus must go through the way of a painful cross in order to restore our authority. Thankfully, Jesus refused a temptation to take a simple way but took the way of cross.

2. 일시에 모든 것을 주리라

“이르되 만일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9절).

사탄은 예수님께 눈 딱감고 한 번만 앞드려 경배하면 천하를 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 그래. 다들 하는 것인데. 못 하는 게 바보지. 왜 돌아가? 한 번만 눈감고 부정이든, 부패든, 거짓말이든, 한 번 해봐.”

마귀가 매우 노골적이고도 더러운 속셈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10절).

2. All this I will give you at a time

“All this I will give you,” he said,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v. 9).

Satan asked Jesus,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with your eyes shut, the entire world I will give you.” And Satan even now tempts us like this, “Oh, come now. Everyone does it. It is foolish that we don’t do it.” But do not return to sinful things. Do not get tangled in corruption or lies.

When Satan tries to carry out his dirty plots, Jesus resolutely says, “Away from me, Satan!” When we stand against Satan, we must not hesitate but be decisive in casting him away.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 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사탄에게 절하면 비굴해 집니다. 추해 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수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절하면 당당해 집니다. 참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키며 천하만국의 영광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진정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not just an insignificant being. God created us, human beings, as more precious than the world. When we are tempted, if we bow down to Satan, we become as ugly and cowardice as sin. We are not able to get the glory of the world nations but the shame of the world nations.

However, if you bow down to God, you will become confident. We will join in God’s glory.

In the midst of your faith in God, you must firmly keep your self-confidence and need not care of the glory of the world. By worshipping only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truly live a wonderful and fantastic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2,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

### 6월 6일(수)~25일(월), 새벽5시 본당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홍해작전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성도들이 인증샷을 올리며 받은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서울교회 공식 페이스북 '익투스' (<http://fb.com/seoulchthus>)에 접속하여 사진을 등록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익투스에 게시물 공유를 요청하여도 된다. 등록된 사진은 호응도를 기준으로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일 초등부, 중등부는 홍해작전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초등부는 그리기 부문 금상: 4학년 김은빈, 은상: 5학년 오소현, 동상: 4학년 정서현 학생이 받았으며, 중등부는 회복부흥을 주제로 하여 4행시 금상(3학년 정시현)은 “회전문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복을 들고 나아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흥할 길은 하나님!”임을 선포하였고, 6행시 금상(3학년 김수경)은 Behind your back there is always God whom we should Respect and praise.

If we are given the choice we should Definitely go and hug our God with all our love. Even when you have those hard time remind that God is always near to you.라고 회복과 부흥의 하나님을 노래하였다. 또한 그림부문 금상(1학년 백시진)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노아 시대를 비로 깨끗하게 하시고 무지개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신 내용을 형상화하였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중등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정과 학교, 국가와 세계의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전교인 '회.복.부.흥'으로 4행시짓기, 영어예배부는 'B.R.I.D.G.E'로 6행시를 공모 중이다. 홍해작전기간 중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중등·고등부는 7번, 대학·청년부는 14번 출석하면 출석상을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서 주무시는 성도들을 위해 남성은 702호, 여성은 706호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아침에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초등부 그림그리기 대회 : 왼쪽부터 은상: 오소현(5학년), 금상: 김은빈(4학년), 동상: 정서현(4학년)

## 2012년 2학기 장학생 선발

### 신청마감: 7월 17일(화) / 수여식: 8월 5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영기 장로)는 2012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만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17일(화)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012년 6월 학습·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20일 수요일 1,2부 예배 시 2012년 세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일 1,2부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2012년도는 4월, 10월은 주일 찬양 예배시 시범 시행)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개종/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

- 다.
- <세례자> 갈수록행복, 김기순, 김미숙7, 김영복2, 김현영3, 송희경, 유영순3, 윤성은, 이주하, 이지은2, 이지은15, 이진수2, 전수현, 정민식, 정환영      계 15명
  - <입교자> 이태희2      계 1명
  - <개종자> 김화자, 박영석      계 2명
  - <학습자> 공경주, 김이규, 김주영3, 문지윤, 박광용, 박윤나, 송미숙, 윤미원, 이구근, 이해진9, 전영주1      계 11명
  - <유아세례자> 오승아, 오승현1, 이재중      계 3명
- 총 32명

## 맥추감사절

### 7월1일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거행

7월 첫 주일이 되는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보리 수확, 곧 울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다.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일 I·II·III부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6월 성경 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11교구) 임옥균 집사
- 1독: (2교구) 정봉금 권사 (2교구) 안창희 집사 (9교구) 이남성 집사 (11교구) 홍서현 성도 (11교구) 국산옥 권사 (16교구) 임송자 권사 (16교구) 이상호2 집사

## 아시아 태평양 농아인경기대회 에바다부 김하나 성도 은메달 수상

제7회 아시아 태평양 농아인경기대회가 2012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잠실주경기장을 비롯한 여러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서울교회 에바다부 성도중 김하나 자매는 달리기 200m, 400m, 1600m 계주에 참가하여 은메달 3개를 획득하였다. 에바다부 임규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경기장을 방문하여 선수들 및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 선교대회 2012.6.28(목) 오전 10시 웨스트민스터홀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 선교대회가 오늘 28일(목)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6.25를 즈음하여 국가의 안보사상을 진작하고 북한 선교를 향한 여전도회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선교대회는 탈북자 김성민씨(자유북한방송대표)와 임창복 교수(장신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선다.

개회예배 설교는 우리교회 박노철 목사가 담당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6.25 호국의 달

# 기도로 세운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박인규 장로 (11교구, 소망부)

대한민국은 믿음의 나라로서 한국전쟁 후 62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 선교사 20,000명 이상 파송한 나라로서 자유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침탈 당하여 신사참배, 기독교 말살정책, 징용, 강제 징병, 각종 처형과 수탈을 당했으며 6.25 전쟁을 겪어 잿더미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기도 시간에 포성과 함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련의 군사지원을 받아 무장하였으며, 소련군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북조선 인민해방군은 탱크와 전투기, 함정, 자포, 곡사포, 기관총, 파발총으로 무장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UN에 긴급지원 요청을 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이 불참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UN군 한국파병을 결의하고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파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최종 확인 결과 지원국 포함 63개국이 참전하였습니다.

김일성은 8월 15일 광복절을 부산에서 잔치하겠다며 최후 결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낙동강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공습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D-day로 잡은 날이 강한 폭풍으로 폭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수송되는 6.25 전쟁 고아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 수도에서 공관으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비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전 교인들의 합심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 작전 당일 날이 개이게 해주었습니다.

한미연합공군의 웅단폭격으로 북한군 주력은 무력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 제 7함대는 인천상륙작전을 완수하고 한미해병대를 선두로 서울로 진격,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는 9.28수복의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38선을 돌파하여 초산, 해산, 청진까지 진격하였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였다가 서울을 재탈환 후 북진, 현 전선에서 휴전상태가 되어 현재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남기고 한국전쟁 발발 6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미해결 문제가 있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쟁 중 납북자,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자,

25,000명의 미귀환 국군포로 등 전후 처리 되어야 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 후에도 무장공비 침투, 간첩남파, 아웅산 테러,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만행사건, 프예블로호 납치, 56함 격침, 항공기 납치 등 북한의 만행은 수도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는 6.25 전쟁이 복침이라고 외치는 집단들, 북한을 전격 지원하자는 정치계와 교계, 공산당의 간계에 무엇인지 모르고 충성하자는 집단, 지령을 내려 보내면 충성하는 이적집단 등등이 국가안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전범인데도 북한 안에 동상이 38,000개 세워져 있고,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삼대세습을 하며 300만 명의 국민을 굶어 죽이는 북한, 그곳에 우리의 동족이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알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목사 및 교인들을 무참히 살해, 구금, 숙청, 수용소에 격리시켰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고 교회를 불사르고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평화와 국가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국군장병들을 위한 기도와 격려, 군의 2020 비전운동, 국민의 75% 기독교화가 되어야만 자유민주주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지상명령 복음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 홍해작전

#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목준용 (초등부 6학년)

홍해작전이 시작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잠을 설치며 차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로 나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졸음이 오고 피곤하였지만 박노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에스더에 대한 설교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놓여있을지라도 모세, 모르드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며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주까지 특별새벽기도회에 다섯번을 참석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부 백인장,그림그리기대회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

따뜻한 동행



최금숙 집사(3교구)

8층에서 진행 중에 있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에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동참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워 하는 영혼을 향한 선교사역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기금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바자 물품으로는 예쁜 피부를 위한 화장품, 고급 이불과 명품손수건, 약세사리, 서울교회에서 음식솜씨로 꽤 알려져 있는 박미혜, 이관보 권사님의 맛있는 반찬이 있고, 집사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생과일주스와 냉커피 등이 있습니다.

단기선교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역에 따뜻한 동행을 소망하며 여러 성도님들

을 초대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품(문구류, 의류, 머리핀, 약세사리 등)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작은 물품이라도 후원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음료 한 잔의 값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도 예비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물품후원 및 구입 : 최금숙집사(010-2271-3742)

우리 모두 한 가족!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 5월 5일 어린이날에 9,10,12교구 연합으로 한마음 한가족 잔치를 베델하우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교역자 내외분들을 포함하여 어르신들로부터 갓난아기까지 원근 각처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주셨고 특히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다락방 식구들의 도움과 부축에 힘입어 활체에 몸을 의지하셔서 오신 분 등 230여명이 함께한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특히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찬양인도와 행사진행에 도움을 주었으며 유,초등부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행사 오래전부터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청년부 형제들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ox퀴즈, 과자



신봉하 집사(12교구 간사)

따먹기, 물풍선 주고받기, 피구경기 등으로 즐거움을 더해갔고 열기를 뽀뽀 응원전은 모든 교구식구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어 하나되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많은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으셨기

에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무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많이 뵈 수 있어서 좋았고,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 마음 한 가족 잔치의 즐거운 한마당이 아니었나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띠여집니다.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요리문답부 2/4분기 수료자 명단

최경숙, 권민정, 양미경, 정해영, 최정환, 한미희, 박미영, 임해정, 정오균, 박현희 이상10명

원로목사 운전기사 모집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차량을 운전해주시 성도님을 찾고 있다. 세례교인으로 40-50세 중반의 남자 성도로 사무국에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교인증명서, 신앙고백서, 담임목사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7일(수) 한국로잔(위) 월례회에 참여한다. 이대 다락방 햇빛회에서 설교한다. 28일(목) 장로교일교단단체제 헌법초안위원회를 소집한다. 햇빛연합대성회에서 특강을 한다. 29일(금) 진위고등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한다.

■ 이사: 7교구 이장로 성도 이현주 집사 용산구 한남동 한남현대 아파트 102동 401호

■ 주간식당봉사: 바울선교회(6.24) 엘리야선교회(7.1)

■ 금주의 식사: 김규태 집사 박미혜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귀중한 선물이

지난 목요일, 웨민홀에서 찬양을 사랑하는 순수 아미추어 찬양대원들이 오랜 시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중한 선물을 드리기 위한 찬송가 발표회를 가졌다. 순수함과 진지함,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으리라. (편집부)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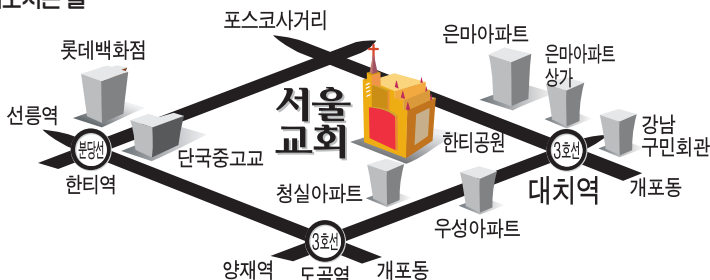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2년 흥해작전은 끝나지만 세대와 세대를 잇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도록
- 6.25 전쟁의 상처를 잊지 말고 철저히 건강한 국가관과 함께 더 밝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팀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후원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